

우리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동지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투쟁속보 2호

안녕하십니까? 천만노동자 동지 여러분.

저희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동인협)는 노동자 여러분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날치기한 노동법, 안기부법은 이 땅의 2500만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재벌과 기업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 하지 않던 정부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책임이 모두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인 양 호도하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와 정부의 위선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업의 정당성은 많은 부문의 노동자들과 보수적인 중간층들을 노동자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고무받은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세하고 있고 미조직된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은 지역, 업종, 사업장, 성별, 피부색, 숙련정도, 그리고 성적지향 등 무수히 많은 작은 부문으로 잘려지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본가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러한 근무조건 차이와 외형적, 성적 차이들을 이용하여 서로가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선거때만 되면 지방색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자의 일과 남자의 일을 나누어서 파업하는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남성 노동자가 파업할 땐 "여우같은 마누라" 논리로 노동자들을 잡아매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이 나라 노동자들의 실업과 범죄를 유발하는 존재라는 악선전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의 단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근에는 국제단체의 대표들을 강제추방시키려 하며 노동자의 국제적인 단결을 깨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와 정부의 "분열시켜 지배하라!"라는 격언을 박살내는 방법은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자본가와 정부에 맞선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바로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밝혔을 때 정리하고 대상 1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자는 그동안 언론과 지배계급, 정부가 끊임없이 퍼뜨리는 악의적인 편견-비정상, 에이즈 전염균, 사회악, 변태- 때문에 절친한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자신의 성적지향성을 숨기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왼손잡이가 되듯, 또는 키가 큰 사람이 되듯, 또는 여성이 되는 것처럼 성적지향성이 동성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일 뿐,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분노하는 여러분의 동료이며 이웃입니다.

억압적인 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일수록 처음부터 자신감있게 투쟁에 동참하기 힘듭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차별적인 사회적 조건 때문에 여성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있게 떨쳐나간 노동자들이 이러한 억압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공공연히 표방하고 지지해준다면 억압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 투쟁의 또 하나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가와 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들의 행동을 고무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쟁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해준다면 우리의 힘은 그만큼 커질 것이고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사장과 정부의 분열 지배 전략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악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주의의 죽음은 노동자와 민중의 죽음이고 또한 동성애자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근조 민주주의>

알림방.

1. 무지개 깃발은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선 5대양 6대주의 동성애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의미합니다.
2. 동성애자인권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매주 일요일 7시 신촌 쇼너(393-3069)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문의: 김준석 (015.903.6216)**
3.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인 친구사이(3141-7942), 여성 동성애자인권모임인 끼리끼리(363-7213), 대학동성애자협의회, 하이텔 또사모(go sg172), 주한외국인여성 동성애자모임 사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를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는 다양성을 배제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권리가 목살당했던 나라에서는 하나같이 다양한 성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고 성적 보수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독재정권이 그러했고 남미의 군사독재 국가들이 또한 성을 은폐하고 억압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히틀러의 나찌국가와 스탈린의 소련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까지 독일은 전세계 동성애인권운동의 심장부였습니다. 히틀러가 모든 노동자 조직을 박살내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가스 수용소로 보냈을 때 수만명의 동성애자들도 독가스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때 동성애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가슴에 분홍색 삼각형을 표시했는데 그 후 분홍 삼각형은 동성애자들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탈린의 소련에서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고 집밖에서는 성과 관련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저지른 1917년의 소비에트 헌법에 비하면 엄청난 후보이고 타락입니다. 노동자 투쟁이 급격히 후퇴한 시기에 동성애자들의 권리도 후퇴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가 가지는 의미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직을 건설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고 결사의 자유는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척도입니다. 민주노총 합법화를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대다수 노동자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소수집단들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설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다양성이 보장되고 나오는 다른 사람,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에 대한 인정과 존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들은 한결같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계에서도 동성애는 질병도, 비정상도 아닌 삶의 차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존엄성은 보수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철저히 짓밟혀 왔습니다. 이성애자의 모든 것이 미아리나 588의 뒷골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나이트에서 여장을 한 차 몸을 흔들며 대거나 화장실을 기웃거리며 파트너를 찾아 다니는 모습이 동성애자의 전부인양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동성애자의 비율은 인구의 5-16%로 비슷합니다. 미국만 유달리 동성애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길을 가다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버스 기사요, 선생님이요, 의사요, 직장 동료요, 가게 점원이요, 또 친구요 가족입니다. 동성애자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또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애 대신 동성애가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소수집단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차별과 억압을 당연시한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소수집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